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국회의원 재당선

중구성동구를 투표율 69.4%… 박 후보 50.81%인 6만1천728표 얻어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5만8천961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4) 후보가 중구성동구를 지역구에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에게 재당선됐다.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구를 유권자 17만7천850명 중 69.4%인 12만3천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가 50.81%인 6만1천728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이혜훈(59) 후보를 2.28%인 2천76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국민의힘 이 후보는 48.53%인 5만8천961표를 얻었으며, 한국국민당 김영기 후보는 0.64% 787표를 얻는데 그쳤다. 사전투표는 5만8천491명, 선거일 투표는 6만4천877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1천611표, 기권수는 5만4천335표에 달했다.

방송3사가 발표한 사전출구 조사에서는 박성준 후보 52.8%, 이혜훈 후보 47.2%로 5.6%차로 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2천표 이상 박 후보가 앞섰지만 중반을 지나면서는 표차가 줄어드는 등 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총선 전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5석(비례포함),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새벽 박성준 후보가 박준민 중구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8석(비례포함),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당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켰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치형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박성준 당선인은 “무능하게 남 탓만 하며 나라를 거꾸로 돌리는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

셨다”며 “오늘의 승리는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승리이고,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승리이며, 공정과 상식 가치를 회복하는 승리이고, 무엇보다 중구와 성동구민의 일류도시를 향한 열망이 담긴 승리다.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이 거부해왔던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영부인 주가 조작 및 비리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4년은 윤석열 정권 2년간 퇴보했던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굴려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속드린 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해 일류도시 중구성동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형연 대표기자〉

주민들의 고민 타파해 주는 만능 해결사

중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전문 상담 서비스 ‘중구랑해’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4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 상담 서비스, ‘중구랑해’를 올해에도 다시 이어간다.

세금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 조언이 필요할 때, 혹은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 바로 근처에 있는 ‘중구랑해’를 찾아가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구랑해’는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직업상담사가 주민 생활권 내 한 데 모여 주민들의 각종 고민을 해결해주는 전문 상담 서비스다.

특히 △법률(민사, 가사, 형사, 행정) △세무(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임대차계약, 매매, 등기) △일자리(맞춤 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안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평소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게 접하기 힘든 각종 전문 상담을 동네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올해 첫 ‘중구랑해’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구역 3번 출구 입구에서 진행됐다. 오는 11월까지 권역 별로 번갈아 가며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민 또는 중구에 생활 기반을 둔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 구청 기획예산과(☎02-3396-4934)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중구랑해’는 기존 운영하던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브랜드화한 것으로 ‘중구민의 고민, 중구랑 해결해’라는 의미다.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내밀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159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확대 운영’을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기존 연 4회에서 8회로 2배 이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관·공동주택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실내 장소에서도 운영해 더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때 ‘중구랑해’가 곁에서 든든하게 해결사가 되어드릴 것”이라며 “동네에서 받는 전문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문당 기자〉

제22대 박성준 국회의원 당선인에 듣는다…………… 4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시민소통도시 선정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등 성과

서울 중구가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시민소통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민간투자 심의 통과 등 괄목할만한 지역현안 사업에 성과를 이뤘다.

특히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은 주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복지, 지자체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한 성과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1일 현장구청장실’, ‘주민 소통간담회’를 운영해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통 가능한 ‘구청장 소통 문자폰’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 12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창조경영’ 시상식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우측)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구는 ‘갈등관리’가 곧 ‘복지’라는 모토 아래 ‘갈등소통방’을 운영해 이웃과의 어려운 분쟁을 해결하고 마을갈등조정

단을 운영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풀어갈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문당 기자〉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서울 중구가 전기차 충전소 2곳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구는 지난 3월 22일 평소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삼성본관(세종대로 73)과 알리앙스 프랑세스(회현동1가 63-2) 두 곳에 CCTV, 차량 감지장치 등을 설치했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차량 진입이 감지되면 서버로 충전소 주변의 영상을 전송한다. 충전은 하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경우엔 경광등과 방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구는 4월 12일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 차량번호판 인식 여부 등의 작업을 마쳤다.

중구가 내 편이라고 느꼈을 때는?

풍성한 출산·양육·교육 등 든든한 내편 스토리 공모 최우수상 1명에 50만원, 우수상 2명에 각각 30만원

서울 중구가 ‘중구가 내 편이라고 느꼈을 때’를 주제로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구의 지원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 순간, 풍성한 출산·양육·교육 지원 덕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야기, 가족보다 더 따뜻한 중구의 손길, 중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 등이 공모 대상이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다. 이야기와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면 가산점이 있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이메일(junggu4u@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작품을 모아 5월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30만원), 장려상 5명(20만원), 참가상 30명(3만원)을 뽑아 시상하고 상금도 준다. 수상작은 6월 초 발표된다.

선정된 작품은 중구 소식지 ‘중구광장’과 중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편중구 스토리북 등에 게시되어 ‘내 편 중구’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당 기자〉

동행·마력
특별시생활

서울
야외도서관
Seoul Outdoor Library

SEOUL
M SOUL

와! 좋다~!

도서관을 나온 도서관

세계
최초
서울야외도서관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맑은넷가

2024.4.18.(목)
~ 11.10.(일)

책 읽는 서울광장 | 목·금·토·일

광화문 책마당 | 금·토·일

책 읽는 맑은넷가 | 금·토



서울야외도서관